

# 불교학 정체 이유는 뭔가

## 선학회 월례발표회등서 제기

### 연구방법론 개발 등한시 타학문과 연계 폐쇄적 불교안에서만 해법 찾기

철학적 용어를 이해하기에 앞서 '불학'의 뜻을 설명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 서걱거리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기관없는 몸'이란 현실의 모든 것을 나누고 가르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인식 체계를 뜻한다.

이에 대해 해원(동국대 교수) 스님은 "불교학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인접 학문의 연구성과도 심분 활용해야 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연구활동도 필요하다"며 "불교학계가 주도적으로 현대철학의 새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 성과와 동향을 검토해야만 된다는 교훈을 얻었

다"며, 현대 사상의 회두에 뛰어들 수 없는 원인을 불교학계 내에서 찾았다.

오진탁(한림대) 교수 역시 "한국철학회, 한국동양철학회 등 학계 일반의 추세와 거리를 둔 연구 풍토는 필연적으로 시대에 뒤진 학풍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교학계는 더 이상 '불교학'에 갇혀만 있어서는 안되고, 내부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외부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한국 불교학의 '공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의 "불교학의 요란한 동국대에서 학제간 교류에 관심을 둔다면, 불교와 인접 학문을 비교·연구하는 불교학자들이 당연히 늘어나고, 이들의 연구 성과는 불교학계 이외 학계의 발표회장에서 발표되고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교도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고,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상이기에 그 시기 사회사나 사상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받아들이고, 다른 학계의 연구 성과와 문제 의식을 불교학의 문제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앞으로의 불교학계는 현대 사상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자 펜팔 홈페이지

### 성지순례와 실용영어 공부

집에 앉아 인터넷으로 세계인과 법우(法友)가 된다. 꿈이 아니다. '불자 펜팔 홈페이지(Buddhist Penpal Homepage)'를 클릭해 보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외국인 불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 살아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가상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불자 네티즌들이 인터넷으로 외국인 불자를 사귀고 성지 순례도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펜팔을 시작하기 위해선 우선 '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메뉴에서는 신상 프로필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불자를 선택,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펜팔을 시작할 수 있다. '리스트'에는 국경을 초월한 불자 프로필만 모두 300여 개 정도가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경전에 이 세상의 진실이 있다고 믿는다"(s3r306@hotmail.com)는 미국 가정주부에서 "러시아에서 티베트 불교 사원에 다니고 있지만, 선과 상좌 부 불교에도 관심이 있다"(stabroek@mail.ru)는 러시아 교사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떤 얘기도 모두 듣고 싶다"(ummra@gurimail.com)는 캄보디아 소녀 그리고 "불교출판사에서 일하며 키운 불상을 나누고 싶다"(linlin31@hotmail.com)는 대만 출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고 있다. 물론 자신의 프로필 또한 '업로딩' 메뉴를 이용해 공개할 수도 있다.

사실 영어로 편지를 쓴다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야후(yahoo.com)나 인포섹(infoseek.com)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기-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어로 펜팔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불자 네티즌이 원하는 문장을 정확한 어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불자 펜팔 홈페이지'에서는 불화나 불상 등 불교미술 작품을 담은 그림 파일이 첨부된 e 메일을 발송하고, 컴퓨터에 불자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유용한 부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e 메일 부가 서비스'는 '불자 펜팔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20여 종의 불교미술 작품과 카드모양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e 메일 주소와 메시지를 입력하면 불교미술 작품을 담은 파일이 첨부된 e 메일이 발송된다. 또 이 곳에서는 불자 네티즌들에게 친근감 있는 상징물에서 성지까지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 세이버를 제공하고 있다. 스크린 세이버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일정시간 쓰지 않을 때 모니터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보호화면으로, 지금까지 이 기능만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개성을 연출하는 영역으로 발전했다.

오종욱 기자

## 익산시 미륵사지 복원 추진

### 예산 2억6천만원 확보... 학술조사 시작

백제 미륵신앙의 중심지였던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에 미륵사 복원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총 2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월 27일 미륵사터 보존과 사찰터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들어갔다.

(사)한국건축역사학회가 맡게 될 이번 학술조사에서는 미륵사 보존·복원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함께 미륵사지와 관련한 사료를 바탕으로 미륵사 복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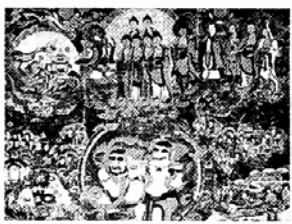
익산시는 내년 4월 학술조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 미륵사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륵사가 복원되면 고대 백제 불교문화의 위용을 살필 수 있는 고건축 교육장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 전문가들은 "정확한 고증없이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귀중한 유적지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은혜사 백홍암 감로왕도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경북도 문화재 지정



◇은혜사 김로왕도.

경북도는 6월 29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은혜사 백홍암 감로왕도의 경우 18세기 불화 양식이 잘 반영되어 한국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역시 8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경북지역의 불교조각 양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혜사 백홍암 감로왕도는 1792년(정조 16년)에 제작된 것으로 가로 218.5cm, 세로 225cm의 비단 바탕에 삼단으로 그림이 나누어져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감로왕도와는

달리 중앙부에 음식을 올리는 의식을 생각하고 2구의 아귀를 특히 강조했는데, 그 주위에 지옥의 고통스런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만장사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높이 222cm, 불신 112cm, 무릎폭 86cm 규모로 옷매듭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대좌에는 화려한 연화문이 양각되어 있다.

권형진 기자

## 로마자 표기법 16년만에 개정

우리말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 16년만에 바뀌었다. 문화관광부는 4일 특수부호인 반달표(˘)와 어랫점(˙)을 없애고, 모음앞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의 로마자 표기법을 g, d, b, s로 통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새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대로 적는 현행 표기법의 틀을 지키되 최대 문제로 지적돼 온 특수문자의 폐기, 우리 발음현실을 반영한 초성 자음의 유성을 표기 방식 채택 등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ㄱ, ㄷ, ㅂ, ㅅ'은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유성을 'g, d, b, s'로 표기하게 된다. 또 국어 로마자 표기의 가장 골칫덩이였던 모음 ㅏ와 ㅓ의 표기방식도 특수부호가 사라짐에 따라 eo와 eu로 바뀐다. 자음 ㅋ, ㆁ, ㅍ, ㅊ도 k, n, p, ch에서 k, t, p, ch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새 표기법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불교문화사전〉 편찬을 통해 '불교용어 영역 규정'을 추진중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은 매회-라이사위 방식을 기본 표기법으로 사전 편찬작업을 진행해왔다. 미국인의 발음에 근거한 이 방식에서는 'ㄱ, ㄷ, ㅂ'을 'g, d, b'로 표기해 개정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교관련 학술용어와 문화재 표기에 혼란이 예상된다. 권형진 기자

## "선종 공부론 유연성 상실 佛說의 본뜻 저버려"

### 김미영 박사 주장



"선종의 공부론은 교종과의 차별성에 집착한 나머지 전법(傳法)의 방법에 매몰돼, 본래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불설(佛說)의 본뜻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다"

김미영(고려대 강사) 박사가 성철선사상연구원의 제15회 백련불교 아카데미에서 '선종과 주자학의 계보학에 나타난 공부론의 경계'를 발표하고, 오늘날 선종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연유를 추론해 주목된다는 것이다.

김 박사에 따르면 선종의 공부론은 의발과 계승이라는 방편을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 즉, '진심(眞心)'을 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형식은 당시 성행했던 교종과 비교해 혁신적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공부론의 뜻은 수행에 정진하는 것으로, 공안·좌선·전법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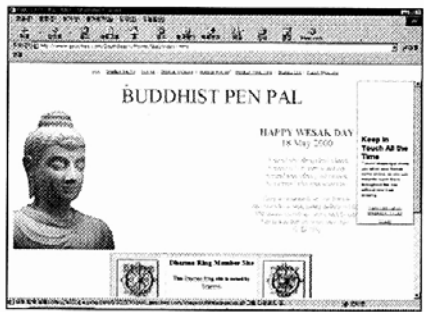
김 박사는 이러한 '혁신'을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드러냄'으로 보고, "진정한 사상의 본질을 누가 어느 계보로 전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기존의 사상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정통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신회 스님이 〈단경〉의 편찬과 확산에 힘을 기울이고 법통의 계보를 내세운 것도 '교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물려주고 마땅히 스

스로 깨닫게 한다'는 법통 상속(공부론)이 부처님이라 이어져 왔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선종의 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결론에서 김 박사는 "특정한 방법론을 절대시하여 자신을 그 전통 속에 고착시킨다면 새로운 전통의 탄생은 요원한 것"이라며 "전통은 항상 지금의 입장에서 재구성될 때, 그 존재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상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http://www.geocities.com/SouthBeach/Pointe/5640/index1.html

**이러닝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숙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숙 엑기스는?

야생 참인진숙(蔞蔞)은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 덮이 속에서 피어났고 활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숙을 말합니다. 구정지역인 양평산맥은 이러한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숙(蔞蔞)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연 쪼개,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관 불과 마음으로 다짐계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숙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용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순수익이름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병약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쫄은 곳에서 향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3-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sook.co.kr

**금해스님의 여 레 섯 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섯식의 뛰어난 맛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순금 만큼 값진 죽염 쥐눈이 콩간장, 콩메주를 발효시켜 한번구운 죽염으로 간장을 뜨고, 숙성시킨 간장에 진짜 지수정 죽염을 넣고, 지수정 죽염 1: 쥐눈이 콩 간장 5: نرم나무 엑기스 1의 비율과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간장 1말이 2되 되게 졸인 진 죽염 간장... 바르고 넣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간장 모든 암에 결정적 영향, 소화기 장질환에 급속 해결

▶ ▶ 숙취 해소, 가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엑기스 1.5L : 60,000원
- 쥐 눈이 콩 메주 1kg 당 : 15,000원
- 쥐 눈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 건강음료 및 장류 사업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경영전문가

상담문의 055)372-1221 / 011)564-1217

·입금 : 우체국 611715-02-016346  
예금주 : 지덕용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 모델 A : ₩3,800,000  
· 모델 B : ₩4,300,000

왕토마을에서는

- 왕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봉송왕토마을**